

사회질서 흐드는 '악질 범죄' 강력 처벌해야

광주일보 공익 캠페인
보험범죄 뿌리뽑자
회 근절 대책은

광주경찰청 전담조직 확대
한방병원 특별단속 등 성과
건보공단 신고포상금제 운영도

보험범죄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윤명성 광주경찰청 2부장(경무관)은 2일 "보험범죄는 인위적으로 사고를 발생시켜 모든 가입자의 보험료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보험제도의 근간마저 파괴할 수 있다"면서 "보험제도의 붕괴는 결국 위기가 닥쳤을 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 그래서 보험범죄를 '소리 없는 대재앙'이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보험범죄 단속에 나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광주경찰청의 보험범죄 관련 검거자수도 지난 2015년 335명, 2016년 498명, 2017년 6월 말 현재 250명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5~2016년에는 검거인원 중 구속자가 없었지만, 올해는 강력한 처벌 원칙에 따라 의사 등 6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최대 10억원)과 손해보험협회(최대 1500만원·적발액이 20억원 이상이면 1500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20%) 등에서는 보험범죄 신고 포상금제도도 운영중이다. 지난 4월에는 단일 보험범죄 사건으로는 역대 최고인 1억93만원이 지급되기도 했다.

주요 기관별 신고는 광주경찰청(062-609-2469), 금융감독원(1332),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062-250-0230) 등으로 하면 된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각종 위험에 대비해 안정된 미래를 보장받기 위한 보험제도가 보험범죄자들로 인해 붕괴한다면 사회적 손실 비용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며 "보험사가 심각한 범죄라는 점을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식하고, 대부분의 선량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보험범죄만큼은 용서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43, 해질 19:34, 달출 16:03, 달짐 01:49
지긋지긋한 폭염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다.
◇지역별 날씨 (℃)
광주 맑음 25/34, 보성 맑음 21/31, 목포 맑음 25/33, 순천 맑음 24/32, 여수 맑음 24/30, 영광 맑음 25/35, 나주 맑음 23/34, 진도 맑음 23/34, 완도 맑음 24/31, 전주 맑음 24/35, 구례 맑음 22/32, 군산 맑음 25/34, 강진 맑음 23/32, 남원 맑음 22/34, 해남 맑음 24/32, 흑산도 맑음 23/29, 장성 맑음 23/33
◇바다 날씨
서해 앞바다 동~남동 0.5~1.0, 남해 앞바다 동~남동 0.5~1.5, 남해 서부 앞바다 동~남동 1.5~2.5,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1.5~2.5
◇돌매
목포 간조 04:42, 만조 10:26, 16:31, 23:49, 여수 00:16, 05:45, 11:57, 19:05
◇주간 날씨
4(금) 25/36, 5(토) 26/34, 6(일) 26/34, 7(월) 26/33, 8(화) 25/32, 9(수) 25/32, 10(목) 25/32
◇생활지수
경고, 식중독, 매우높음, 지의선, 높음, 피부질환

전북 시민단체 "서남대 폐교는 비리사학 재산 지켜주는 꼴"

교육부, 서울시립대 정상화 계획 수용 불가...폐교 수순
정상화 추진위 "학교재산 구 제단에 이관 저지할 것"

교육부가 서남대 폐교 절차를 공식화한데 대해 전북지역 각계각층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서남대 정상화 촉구 전북시민추진위원회는 2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교육부의 폐교 방침을 성토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시립대를 통해 서남대를 인수하려던 서울시도 교육부의 서남대 폐교 결정에 강력 반발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서울시립대와 삼육학원(삼육대)이 제출한 학교법인 서남학원 정상화 계획서(인수안)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서남대에 대해 '폐교' 가능성을 포함한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서울시립대와 삼육대가 서남대 '의대' 인수에 초점을 뒀기 때문에 인수안대로라면 서남대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비리재단 관계자를 경영에서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교육부가 서남대 폐교 절차를 공식화한데 대해 전북지역 각계각층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서남대 정상화 촉구 전북시민추진위원회는 2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교육부의 폐교 방침을 성토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추진위는 성명서에서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서남대를 폐교하면 학교 재산이 설립자인 이흥하씨의 또 다른 학교 법인에 귀속된다"며 "결국 폐교는 사학비리의 기해자 재산을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꼴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뇌운동으로 치매 예방하세요" 2일 광주시 동구보건소 교육실에서 열린 치매예방 프로그램 '두근두근 뇌운동 교실'에서 어르신들이 율동을 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전투기 소음지역도 전기료 지원해야"

광산구주민대책위 촉구... "민간공항 주변과 형평성 맞아야"

광주 군 공항 인근 주민들이 민간 공항 주변 거주 주민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제도(지난달 26일자 6면)와 관련, 민간 항공기뿐 아니라 전투기 소음 지역도 동일한 냉방 전기료 지원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공항소음피해소송광산구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일 보도자료에서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에 민간 항공기(여객기) 피해는 포함시켜 월선 심각한 전투기 소음피해는 포함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대책위는 "지난해부터 공항 인근의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7~9월 까지 3개월간 가구당 5만원의 냉방전기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라며 "올해는 6~9월로 기간과 지원대상이 늘어 총 154억원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포·제주·김해·울산 등 여객기 운항이 많은 지역만 지원하고 가장 시끄러운 광주·대구·수원 등 전투비행장 인근 주민들은 소외시켰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소음피해지역 선정 시 전투기 운항 지역까지 확대하고 전체적인 소음 지역 범위도 확대해 전투기 폭음과 폭음에 시달리는 주민들에게 형평성에 맞는 보상과 지원을 하라"고 요구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 첫 일본뇌염 매개모기 확인

일본뇌염을 전파하는 작은빨간집모기가 광주지역에서 올해 첫 발견 됐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2일 "지난달 27일 광주 수변지역에서 작은빨간집모기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작은빨간집모기 모두가 일본뇌염을 옮기는 것은 아니지만 바이러스를 보유한 모기에 물린 경우 드물게 걸릴 수 있다.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4월 일본뇌염주의보를 발령한 이후 지난 6월 경보를 발령했다. /오광록기자 kroh@

중고차 살 때 침수 여부 확인을

집중 호우로 침수된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유통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15년부터 올 6월까지 1372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690건으로, 피해가 꾸준히 발생했다"고 2일 밝혔다. 차량 실내에 곰팡이 등 악취가 나거나 안전벨트를 끌 때까지 당겼을 때 진흙 흔적이나 물때가 있는 경우, 차량 곳곳 흙이나 녹슨 흔적이 있는 경우, 배선 전체가 새것으로 교환된 경우는 침수차량으로 의심해볼 수 있다. /김용희기자 kimyh@

8·15 광복절 기념 제3회 화순~광주 동구 너릿재 옛길 **혹서기 마라톤대회**
2017년 8월 20일(일) 오전 8시 출발
접수 및 문의 ☎(061)375-1288 http://marathonworld.kr/
장소 | 너릿재 옛길(화순~광주 동구 구간 4,2195km)
출발 | 너릿재 옛길 주차장(화순 소아르 갤러리 앞)
코스 | 화순 소아르 갤러리~너릿재~너릿재 옛길 주차장(광주 동구)
종목 | 풀(5회왕복), 25km(3회왕복), 8.5km(1회왕복)
참가비 | 25,000원
접수인원 | 선착순 500명(입금기준)
주최 | 광주일보사·마라톤세상
주관 | 화순군육상협회·마라톤세상
후원 | 화순군, 광주광역시 동구